惕齋 李書九의 學問과 政治的 志向

유 봉 학

1. 序 論
2. 學問과 仕宦
3. 政治論과 政策
4. 結 論

1. 序 論

18세기 후반 正祖代의 활발했던 사상적 문화적 움직임은 그 스스로 정치적 지도자로서 또 학문적 지도자이고자 했던 正祖의 右文정책에 힘입은 것이었고 이러한 속에서 燕巖一派의 北學思想이 제기된 것이었다. 강고했던 조선 전통학계의 영향력과 右文君主의 관심 속에 湛軒 洪大容(1731～1783)과 燕巖 朴趾源(1737～1805)을 필두로 하는 李德懋(1741～1793), 朴齊家(1750～1805), 柳得恭(1749～ ?), 李書九(1754～1825)의 '四家'와 南公轍(1760～1840), 徐有榘(1764～1845), 成海應(1760～1839) 등은 조선의 중앙학계와 문화계에 북학을 대세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견제와 推奬을 동시에 받았던 이들의 사상적 지향은 기존의 학풍과 문풍을 반성적으로 수용하는데서 가능한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북학사상의 형성은 조선 전통사상의 발전적 자기극복과정이기도 했다. 담헌과 연암은 조선 전통주자학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洛論'의 철학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는 가운데 인간과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도출해 내었으며 '法古創新'의 새로운 文風을 고창하였던가 하면 그와 함께 선배들의 北伐大義論에 대치되는 北學論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과감한 주장은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지식인=士의 사회적 책임의 각성과 조선사회 전반의 고립되고 낙후된 현실의

(1) 拙稿, 1982「北學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韓國史論』8 과 1986「18, 9세기 老論學界와 山林」『한신논문집』3, 1989 「19세기 전반 世道政局의 동향과 燕巖一派」『東洋學』19 참조.

직시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런 만큼 사회적 조건의 변화 속에 이들의 자아의식이나 현실인식이 바뀌어갈 때 그들의 주장과 논리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右賢左戚'을 표방하였던 정조의 淸論士流 등용에 힘입어 이들 지식인이 활발한 정치적 진출을 달성하고 북학사상의 사상적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면, 정조의 돌연한 서거 이후 전개된 척족세도를 위시한 파행적 정치 사회 상황은 이들 지식인과 북학사상에도 커다란 파란과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2) 북학사상을 주도하던 이들 지식인 사이에선 정국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정치적 노선의 갈등이 일어났으며 京華巨族的 官僚學者로서 격동하는 사회상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대처방안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간에는 청조 문물의 수용태도라든가 청조고증학의 수용수준을 놓고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漢學과 宋學간의 학문적 우위논쟁이 새로운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그간 북학사상의 형성, 전개 과정을 연암일파 지식인을 중심으로 살펴왔던 필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惕齋 李書九의 생애와 학문·사상, 그리고 그의 정책 수행과 정치적 지향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척재는 그 지벌이나 학식에서 연암의 큰 기대를 모았던 후배학자로(3) 훗날 判書·右相에 까지 이름으로써 領相을 지낸 남공철, 判書·奉朝賀에 이른 서유구와 함께 연암일파의 경화거족적 관료학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純祖代 이후의 戚族世道를 반대하는 특이한 정치적 궤적을 보이고 있다. 젊은 시절 연암 등의 법고창신적 문풍을 수용하면서 一家를 이루었던 淸新한 北學的 詩風, 그리고 후대의 인물평에서 단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그의 통찰력과 실무적 행정능

---

(2) 순조 초년 燕巖一派 가운데에는 南公轍 정도를 제외한다면 연암 자신과 이서구·서유구 등의 京華巨族的 官僚 그리고 朴齊家, 柳得恭, 李光葵(李德懋의 아들), 成海應 등 中庶지식인들이 모두 죽거나, 몰락 또는 落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성해응은 이광규의 죽음을 맞아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맞게된 처량한 운명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成海應, 『硏經齋集』 권 17 「李奉杲光葵哀辭」
'庚申抱方劍之慟 楚亭 得罪 竄北邊之鍾城 旋獲宥 而歸以沒 泠齋 亦落拓 得疾以沒 余又衰且病 每循省故事 只自凄感而已'

(3) 朴趾源, 『燕巖集』 권 7 「綠天館集序」
'李氏子洛瑞(李書九의 字) 年十六 從不佞學有年矣 心靈夙開 慧識如珠 嘗携其綠天之稿 質于不佞曰…'
朴宗采, 『過庭錄』 권 1
'疆山(李書九의 號) 年最少 而穎拔出群 沈靜有識量 先君(朴趾源) 愛重之'

력,[4]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겪어야 했던 쓰라린 정치적 좌절[5]은 격변하여 갔던 이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과 그에 맞섰던 북학사상 일각의 추이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는 간신히 인멸을 면하였던 방대한 그의 저술[6] 들을 수합 검토함으로써 북학사상의 일단으로서 그의 사상이 가졌던

---

(4) 이서구의 '吏才'는 훗날 金邁淳 등에 의하여 오히려 西厓 柳成龍보다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며 洪奭周는 이서구가 戶判 때 戶曹書類에 정통했던 면을 戶曹 老書士의 말을 빌려 傳言하기도 하였다.(洪翰周『智水拈筆』권 8) 그러나 같은 부류 후배학자들의 이러한 평가 이외에도 세도정국의 희생자였던 그의 비극적 정치행로와 관련하여 그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를 펴지못한데 대한 아쉬움은 朝野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純祖實錄』李書九卒記의 史評이 그의 文學, 經學과 事務에서의 능력을 열거한 후 民의 기대('民望')가 그에게 쏠려 있으므로 국왕이 특별히 그의 放廢를 풀고 등용하려 하였다고 한 것이나,(『純祖實錄』卷 27 純祖 25년 乙酉 10월 乙卯條 '盖其文學精鍊 經術淹雅 綜理事務 才識兼優 而尤以廉約稱 民望攸屬 故 上欲洗滌 而進用之也 然 簡亢自高 無許可者 此其取敗也') 비록 약간의 윤색은 가해졌지만 예컨대『鷄鳴漫錄』의 '南朝鮮王國說'에서 "…相國 李書九는 異人이었는데 임금(正祖)께서는 그가 식견이 많다는 것을 듣고 이 일을 탐지시키기 위해 특별히 전라감사에 임명하였다. …"라 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한명기, 1990「사회세력의 위상과 저항」『조선정치사 1800~1863』상 305쪽에서 인용)

또한『大東奇聞』卷 4의 다음 기사는 순조년간 전라감사 시절에 戶籍庫가 불탔음에도 호적을 안전히 보관할 수 있었던 그의 행정능력과 先見之明이 人口에 회자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아니라, 세도정치 부패의 한 상징적 인물인 荷屋 金左根의 愛妾 羅閣의 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는 외척세도의 희생물이 된 데 대한 애석함까지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書九多前知之事 純廟時 再任全羅監司 釐正宿弊 一道賴安 臨歸 取戶籍 分給諸吏 使更謄書 別儲一庫 未幾 戶籍庫失火 他帳簿 盡歸烏有 唯獨別謄戶籍 無羌 書九爲全羅監司 一日 見天罡星 落於羅州地方 招營隷 喩之曰 汝往羅州某人家 其婦必生產矣 若生男 必殺之 生女 勿殺而歸 營隷歸報曰 果生女 書九曰 若生男 則必亂國命區區女子 何足爲也 然必爲權貴妾 勢傾一時也 其後 果爲荷屋金相國妾 是爲羅閣')

(5) 그의 정치적 좌절에 대한 아쉬움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피력되고 있다. 예컨대 당대의 山林學者 홍직필의 '元祐完人' '當世之儒相'이라는 다음 자료의 평가도 그러한 일례이다.

『惕齋先生行錄摭遺』坤「洪梅山直弼與金邱隅箕書書」

'嘗謂 庚申後 元祐完人 當以此老當之 雖謂之當世之儒相可也'

(6) 외척 세도정치에 저항했던 이서구의 저술은 반대를 용납치 않는 독재적 성격의 세도정국이 지속되는 한 공개되기 곤란한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서구가 1806년 '丙寅更化' 무렵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惕齋自述』에서 자신의 기록이 時諱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 30 내지 50년이 지나야 어느정도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하였던 것이 그것이다.(『惕齋自述』'此文字 又皆信筆 寫去未及點竄 亦宜詳細刪潤 方可示後 第其所記 多觸時諱 非過三五十年 恐未易煩人眼目也')

장기간의 외척세도가 초래한 그의 생전·사후의 오랜 정치적 방폐, 그리

과제와 전망은 물론 그에 수반된 시대적 고민과 한계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2. 學問과 仕宦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宗室가문 출신이었던 이서구는 宣祖 第12子 仁興君의 6대손으로서[7] 『大東金石書』의 찬자로 肅宗代 書畵 金石의 대가였던 朗善君 李俁이래의 학예를 가풍으로 계승하였다. 어린 시절 그는 內舅와 叔祖에게서 기초적 경전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서울의 노론명사로 문단, 예단을 이끌던 金用謙을 빈객으로 冠禮를 올렸는가 하면, 만권장서를 갖춘 家傳 書庫 '萬

고 嫡孫의 단절과 후손의 몰락 등으로 인해 아직껏 그의 저술은 집성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산일되었다. 최근 3권 2책의 『惕齋集』이 보경문화사에서 영인되었으나 그의 저술과 言行錄은 현재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에서 확인된 것만으로도 『惕齋集』 16권 8책 등 다음의 총 17종 29책에 달하여 앞으로의 추가 발굴과 체계적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1. 惕齋集 16권 부록 합 8책 ; 규장각 도서번호 古 3428-252
2. 惕齋集 3권 2책 ; 古 3447-28
3. 薑山初集 4권 1책 ; 奎 7488
4. 薑山初集 4권 1책 ; 古 3447-24
5. 薑山初集 4권 1책 ; 古 3447-29
6. 惕齋書牘 1책 ; 古 3438-8
7. 惕齋讀詩記 1책 ; 古 1324-2
8. 課講講義 1책 ; 奎 12232
9. 薑山筆豸 1책 ; 일사 古 920.051-y63g
10. 惕齋屛居錄 1책 ; 古 0320-9
11. 惕齋先生行錄摭遺 2책 ; 古 4655-37
12. 惕齋自述 1책 ; 古 0320-8
13. 惕齋先生行狀 1책 ; 古 4655-9
14. 埰左從政志 1책 ; 古 4254-8
15. 丙戌記事 1책 ; 古 4254-9
16. 惕齋相公從政隨錄 3책 ; 古 4254-10
17. 丁未問答錄 1책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번호 한 51-233

이밖에 이서구의 필적으로서, 규장각 소장의 「李正言墓表」 1帖(31折 31面 奎 12312)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畵帖 『畵苑別集』이 전하고 있다.

(7) 이서구의 혈연적 관계는 본 논문 끝의 附錄 1 惕齋血緣圖를 참조할 것. 인홍군의 奉祠孫이었던 그에게는 나이 50이 넘어 얻은 庶子 庶女는 있었지만 嫡子가 없었으므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은 하릴없이 점차 늙어가는 것, 그리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던 것과 함께 그에게는 평생의 大恨이 되었다고 한다. (『惕齋先生行錄摭遺』 坤 '吾則平生有三大恨 無子一 漸老一 登第一') 이서구의 생애는 그의 行狀과 年譜를 중심으로 하여 附錄 2의 惕齋年譜에서 본고와 관련되는 부분을 축약하여 소개하므로 본론에서는 세세한 언급을 할애하기로 한다.

古藏'[8]에서 家學인 詩文·金石·六書之學 그리고 禮學 등의 '專門之學'에 침잠하기도 하였다.[9] 또한 그는 20세 전후의 젊은 시절 연암을 추종하여 '利用厚生經濟名物之學'의 연구와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법고창신의 시문론에 공감하면서 청신한 북학적 시풍을 이루었다.[10]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과 『巾衍詩集』을 내어 청조 문단에까지 이름을 날리고 홍대용과 박지원 등 선배의 교유를 이어받아 淸朝의 文士들과 문학적 교유를 한 것도 이 시기이었다.[11]

그런데 연암 등의 영향을 받아 법고창신론의 연장선 상에서 성숙되어 갔던 그의 시문풍은 農巖 金昌協 이래 조선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정통적 古文風을 수용하면서도 보다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詩에서는 조선시단의 擬古的 시풍을 반성하면서 淸朝 王漁洋의 神韻說에 입각한 시풍을 수용하는 등의 새로운 경향을 보이었다.[12] 이때 그가 왕어양 시풍의 수용논리로 제기했던 것은 그 시가 오랑캐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反淸의 명분 때문에 그 시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고[13] 이는 바로 박지원, 박제가가 청조문물 수용의 논리로 제기하였던 북학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14] 그런 면에서 이서구의 新詩風은 법고창신론에 바탕한 북학적 시문풍

---

(8) 李書九, 『惕齋屏居錄』
'吾家 自靖孝公 已有藏書數千卷 孝敏公 收蓄漸富 陽德坊舊第有貯書之閣 扁以萬古藏'

(9) 李書九, 『惕齋自述』
'旣免喪 亦不專意科業 雖以書籍自娛 而如閑漫 詩文金石六書之學 消費光陰者數年…是年夏 因人言 屏處 遂不復應講者八年 而於戴禮 少有篤好 常慾爲專門之學 竟未能焉 至今以爲恨'

(10) 朴宗采, 『過庭錄』 권 1과 박지원, 『燕巖集』 권 7 「綠天館集序」 참조.

(11) 『韓客巾衍集』 (古 3447-28의 『惕齋集』에 부록되어 있다.)이라고도 불리는 『巾衍詩集』과 이서구의 젊은 시절 시집 『薑山初集』 (奎 7488) 등에는 李調元·潘庭筠 등 홍대용·박지원과 교유하였던 청조 문사의 序文과 詩評들이 실리고 있다.

(12) 이서구와 이덕무·박제가는 왕어양 시풍의 최초의 소개자이었다. (『智水拈筆』 권 6 참조) 또한 이서구와 이덕무가 서로 상대방 시의 왕어양 시풍을 말하였던 것은 바로 이들이 神韻說 詩論 수용의 중심인물이었음을 알게 한다.
『惕齋集』 (古 3447-28) 권 1 「讀漁洋山人詩集 二首」
'李懋官 篤信王氏 嘗有詩云…可見嗜之之深也'
李德懋, 『靑脾錄』 권 3 「王阮亭」
'薑山爲詩 心慕力追 登堂入室 余嘗推轂 爲東國漁洋 以贈詩曰……'

(13) 『白鶴山樵小笈』 卷 4 「讀王貽上詩序」
'假使 貽上出自滿洲 身隷八旗之統轄 於詩 則愛其詩而已 何必摒其胡 而及於詩也哉'

(14) 연암일파의 대청의식과 북학론에 대하여는 拙稿, 1982와 拙稿, 1988 「18.9

이라 할 것으로 단순히 외래적 시문풍이 아니라 전통적 시문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시문풍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듯하다. 정조가 훗날 文體反正을 주도하여 주자학에 입각한 醇正古文風을 가지고 문풍을 광정코자 하였을 때, 연암 등과 함께 또한 반정의 대상자가 되었던 그는[15]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정조의 文體策에 저항한 인물이었다. 그가 추종했던 연암조차도 자신의 문풍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그는 「對策」을 통하여 국왕의 文風주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文體는 世道에 좌우되는 것이라 갈파하고 정조에게 문체를 고치려들기 보다는 세도를 바로잡기 위한 善政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고하는 기개를 보이었던 것이다.[16]

한편 先代 이래의 개성적 가학풍을 계승하여 '專門之學'을 추구하였던 그는 당시 연암이 청조고증학의 현실도피적 측면을 지적하고 그를 부정하였으며[17] 정조가 稗官小品의 문풍과 한 묶음으로 청조고증학을 매도하고 있었음에도[18] 고증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청조고증학의 폐해가 어떤 것이든 그가 가학으로서 계승한 歷史 地理 및 金石 考證과 名物度數의 '專門之學'은[19] 앞시대로부터 실용성을 인정받아온 터이었으며 그것이 고증학과 공통적 측면을 가졌을 때 이는 고증학 수용의 발판이

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추이」『한신논문집』 5 참조.

(15) 『惕齋先生行錄撫遺』 乾
'壬子十一月 上曰 … 如袁中郎 鍾潭輩 皆是小品 流弊不小 承旨亦須努力 改其文體也'

(16) 李書九, 『惕齋集』 권 7 「對策-文體」
'…竊嘗觀夫近日之文 盖其可憂者二 其不必憂者亦二 文氣之衰弱 不必憂 而事實之無足記 爲可憂也 文風之委靡 不必憂 而理義之不能明 爲可憂…由是論之 文體之高下 專由於世道之汚隆 世道之汚隆 不係於文體之高下 而殿下 今日之所當憂者 亦宜在此 而不在彼也…然 臣愚死罪 願殿下 毋責於當世之士 先思所以自反之道也…'
鄭玉子, 1988 『朝鮮後期 文學運動史』 (一潮閣 刊) 135쪽 이후의 자세한 논술 참조.

(17) 拙稿, 1982 참조.

(18) 正祖, 『弘齋全書』 권 163 「日得錄-文學」
'目今文體之日卑 至於莫可收拾者 即考證之學 有以啓之'

(19) 『惕齋先生行錄撫遺』 坤
'公 自在妙齡 博綜群經 網羅大典 而貫通鄭漁仲馬貴與之學'
'余於東國輿地 少頗究心…是皆前人所未詳 而自余發之 考據明白 其他三國分界 漢四郡唐二府之經 皆有所分析於心中者 嘗欲纂次成書 以補史傳之闕誤 而竟未果焉…嘗欲就此碑目 斷自高麗以上 考證纂次 作海東金石考幾卷 以成先志 而竟皆未暇焉'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20] 전문지학을 강조하였던 그는 또한 어려서부터 程朱를 굳게 믿어[21] 조선의 전통 주자학과 주자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청조고증학자의 문헌을 읽고 또 실제로 '攷古之學'적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던[22] 그는 결과적으론 자연히 理氣心性論 위주의 전통주자학—朱子主義的 義理之學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어서 다음 시기 북학풍의 경향적 단서가 그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었다.

물론 영·정조대 서울의 다채로운 사상과 문화 분위기에 영향받으며 성장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었던 그에게서 문학과 학문이 평생 일관된 지향만을 보인 것은 아니다. 젊어 초년에는 詩律로, 중년에는 정치적 역량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만년에는 經術로 즐겼다고 하는 오희상의 척재 삶에 대한 특징적 묘사는[23] 그의 삶에 규정되었을 관심분야의 전변과 학풍·문풍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실제 문풍의 경우, 젊어서부터였다고 생각되는 『漢書』와 歐陽修 歸有光 문풍과 杜甫 五七言詩에의 선호가 지속되었던 반면 그의 대체로의 시풍은 唐詩風을 전범으로 하는 젊어서의 신운설의 시풍에서 만년엔 宋詩風으로의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었다.[24] 또한 그의 경학풍도 주자주의적 의리지학풍에 고증학풍이 첨가되는 과도적 양상을 보이나 오랜 방폐기를 거치게되는 만년에는 『周易』 연구에 침잠하는 등[25] 문학보다는 경학에

(20) 이서구는 정조가 명물도수를 儒者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동감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들이 이해한 명물도수의 학풍이 아직은 조선 전통적인 학풍으로서의 범위 내에 머물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惕齋集』 권 7 「對策-文字」 '今我主上殿下 知周萬物 學冠百王…而至於名物度數 不以小道而或忽 乃謂音韻之學 亦是儒者之所當知 萬機之暇 躬加討論 爰命臣等 纂次成書…') 그러나 이들의 전통적인 名物度數之學風도 여러 청조고증학의 성과들을 이용하게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차 청조고증학 수용의 단서를 마련하는 셈이었다고 하겠다.

(21) 『惕齋屏居錄』 '自少篤信程朱 雖博觀群籍 而能不爲他岐所惑'

(22) 『薑山筆豸』 上 「小引」
'然 凡於攷古之學 嗜好頗篤 適長夏無事 遂取此二書(錢謙益 『列朝詩集』, 朱彝尊 『明詩綜』) 略爲辨覈摠四十則'
그 밖에 앞의 註 19 참조.

(23) 『惕齋先生行錄摭遺』 坤 「吳老洲語趙白川中植」
'洞陰李相公 初年以詩律鳴 中年以政治聞 晚年以經術自樂 晚年勝於中年 中年勝於初年 可謂善變也 云云'

(24) 『惕齋屏居錄』
'詩則少喜唐人 而晚年持論 必以宋爲歸 於少陵無所間然 而尤服其五七 古文則以體裁簡整 喜看漢書 而尤愛廬陵震川 歔欷感歎'

(25) 『惕齋屏居錄』

치중하고 학풍과 문풍 모두 전통적인 것으로의 회귀양상도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서구의 북학적 문풍과 학풍은 老論淸論의 士論과 義理論을 고수하였던 父親 이래 그의 정치적 입장[26]과 함께 정조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듯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조의 右文정치와 峻論蕩平은 이러한 경향의 관료학자들을 포용하고 또 그 지지를 받음으로서만 유지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다. 奎章閣臣이 아니면서도 각신보다 더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27] 정조 우문정치의 일각을 담당하였던 그는 承旨 등으로 정조의 측근에 있으면서 閣臣들과 함께 『奎章全韻』을 교정하였던가 하면[28] 『輿地考』와 『春秋』를 교정하고, 大明義理論 등의 명분론에서 정조의 인정을 받으며[29] 『尊周彙編』의 편찬을 주관하게 되는 등의 활약을 보

'自少篤信程朱 雖博觀群籍 而能不爲他岐所惑 少未學易 而偶因讀詩有悟…故善讀書者 六經皆是易 晩歲欲專意讀易 而竟未遂志'

(26) 『惕齋自述』
'戊子己丑間 淸議方生…先府君所交遊 多一時勝流 如金公尙默 宋公載經 尹公耆東'

(27) 『惕齋自述』
'自戊申 出入近密十有三年 偏蒙知奬 丙辰以後 眷厚益隆…上嘗敎曰 外人或言非閣臣而勝閣臣 最被親遇者 惟承旨爲然 至比於某某'

(28) 1792년 6월 『奎章全韻』 교정시 참여하였던 다음과 같은 이들의 면면은 이서구 등 북학사상을 선도하였던 연암일파의 신진기예들이 규장각신과 승지 검서관 교리 등의 학문직에 포진하여 학술활동의 주류를 이룸을 보이는 전형적 일례로서 정조 우문정치와 그 핵심 소장 관료학자의 범위를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壬子六月 承命校正奎章全韻 輪校者 先生及 閣臣 徐榮輔 南公轍 承旨 李家煥 檢書官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校書校理 成大中 凡八人 而先生之所釐改者數百餘條'

(29) 그는 明 崇禎帝 이후 명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弘光 隆武 永曆 세 황제의 播遷 기간을 명의 정통적 역사로 넣어 서술할 것을 『尊周彙編』 義例로 정조에게 제안하여 華夷論에 입각한 전형적인 正統論的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역사인식태도는 대명의리론의 면에서는 차라리 이 시기를 無統之世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던 정조의 입장보다도 철저한 면이 있었다. (『惕齋先生行錄摭遺』 己未 12月 末尾의 기사 참조) 그러나 대명의리론을 인정하는 위에서 북학론의 논리적 토대를 마련한 홍대용과 박지원의 사상적 지향을 수용하면서(拙稿, 1988 「18·9세기 大明義理論과 對淸意識의 추이」 『한신논문집』 5 참조) 청조문사들과 밀접히 교류하고 청조 문풍 학풍에 접하기에 이르고 있었던 이서구의 이러한 사상적 지향은 과도적이긴 하나 북학론이 그에게서 보다 실천적 면모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 면에서 그는 연암일파 후배들의 선도적 입장을 지니게되는 것이었다.

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조로부터 보다 크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의 실무적 행정능력이었다. 정조의 의도에 따라 그는 수년간 備邊司의 실무를 전담하고 있었으며[30] 특히 전라감사와 비변사에서의 전라도 句管堂上職 역임은 훗날 호조판서와 호남감사로 실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31] 1820년 15년간 방폐되어있던 이서구를 세도정권이 특별히 복관시키면서 당시 대기근으로 곤란에 처하였던 호남감사로 특배하였던 것도 이런 공론과 '民望'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인다.[32] 하지만 그의 능력은 정국의 변화 속에 그의 환로가 파란만장한 것이었던 만큼 충분히 발휘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1774년 登第한 후 정조의 준론탕평에 부수된 노론청론의 대두와 함께하였던 그의 사환은 부친의 교우로서 노론의 의리론과 黨論을 고수하였던 金尙默형제, 宋載經, 尹蓍東, 兪彦鎬 등의 뒷받침을 받고 또 그를 추종하면서 정권의 핵심에 접근해간 것이었으나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왕권강화를 도모하던 정조는 그의 치세 전반기의 洪國榮과 후반기의 鄭東浚[33]에의 신임에서 보듯 소수 貴近세력에 의지하는 지도력의 한계를 노출시켜 淸論

(30)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自丁巳(1797년 正祖 21) 以後 上專責廟務於先生(方帶備堂有司之啣) 頻承召接 旣無虛日 每以聖體漸倦 期以六七年 民國大事 欲此第整頓 責成專在於有司 予所知者 惟卿一人 責勵諄諄'

(31) 이서구가 行左承旨로서 호남구관당상이었던 1798년, 아마도 정조가 徐龍輔와 이서구에게 내렸다고 보이는 구관당상직의 전문적 수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독려는 정조의 지방 사회문제에 대한 시책방향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런 정조의 의도 하에 이서구가 호남문제 전문가로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조건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弘齋全書』 권 170 「日得錄-政事』
'備堂之句管諸道 盖欲使摠領一路之事 上以備詢訪下 以盡承宣 近來 此法廢弛 徒有句管之名 未見句管之實 此亦百隷怠慢之一事 自今以後 諸道句管堂上 留意於道內事情 凡有詢問 毋敢曰不知 又於命令之下 各盡宣布之方 俾存古規'

(32) 註 4의 『純祖實錄』 李書九卒記 등 여러 기록 참조.

(33) 정조 19년 정월 정동준을 '貴近'으로 탄핵한 權裕의 상소 이후(『正祖實錄』 卷 42 正祖 19年 乙卯 正月 癸巳條 참조) '權幸'이라고도 지칭되었던 정동준이 제거되자 이서구는 그 결과로 이루어졌던 유언호 등 청론세력의 再起를 반기면서 정조에의 새로운 기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惕齋行狀』 '是歲(1795年 乙卯) 權幸鄭東浚旣死 而進用兪忠文彦鎬諸公 朝論 方以尊聖德明聖志爲務') 유언호는 박지원의 절친한 친우로서 박지원이 홍국영을 피해 開城부근 燕巖峽에 은거할 때 開城留守로서 그를 보호하는 우정을 발휘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拙稿, 1989 참조)

士流의 진출에 혼란을 야기시키고도 있었으며, 노론 청론사류 자체가 정조 치세의 후반기에 時僻의 분기를 보였던 것은[34] 노론의 의리론을 고수하면서 어떠한 외척과의 연결도 거부하는 청론사류의 근본적 입장에 서려고 했던 이서구의 정치적 진출과 활동을 옥죄는 요소가 되었던 듯하다. 1783년 金龜柱를 공박하는 疏箚에 가담하였던 그는 1784년에는 훗날 김구주와 함께 벽파로 공격받는 金鍾秀·송재경을 '凶黨'으로 지목하는 '時議'에 반대하여 그에 거슬리게 되고, 다시 1800년 국왕 정조의 인사권 및 정국 운영구도를 밝힌 이른바 '五晦筵敎'에 찬동하는 상소를 올림으로써 노론시파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35] 이러한 그의 독자적 정치노선 때문에 훗날 그는 시파 외척 세도정권에 의해 僻派로 몰리어 생전과 사후에 거듭 정치적 축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순조 초년 어린 국왕이 제 구실을 못하는 가운데 戚里, 宮宦의 발호와 士流의 분열로 조상이 혼미의 조짐을 보일 때에 다시 그는 척리, 궁환을 배척하면서[36] 時僻의 대립에서도 초연한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려 하게 된다. 부친 이래 노론청론의 정치적 지향과 전통적인 주자학적 정치론으로서 士林政治의 이상을 추구하였던 그로서는 宮宦 貴近에 의지하게 되는 국왕의 專制나 더구나 척신이 주도하는 世道政治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정조의 급서 후 정조가 부식하였던 친위세력이 분열하는 가운데[37] 전개된 외척 세도정국은 그의 정치역정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다. 그로서는 정조사후 순조 6년의 '丙寅更化'(金達淳獄)에 이르기까지 世道가

(34) 朴光用, 1990「정조년간 時僻黨爭論에 대한 재검토」『韓國文化』11 참조.

(35) 『惕齋先生行錄摭遺』乾 甲辰 冬 기사 '…由是 大忤於時議…'와 庚申夏 기사 '…此乃府君所以積受疑忌者也…' 등의 기록 참조.

(36) 순조 초년 이서구가 그의 가장 절친한 정치적 동지 徐龍輔와 나누었던 다음의 대화는 이 시기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잘 시사하고 있다. (『惕齋自述』, '徐閣力挽曰…聖上方在沖年 幸使戚里稍抑 又安知無閹宦之害 甚於戚里乎 然則國事自我而愈壞 吾輩報國 當思萬全 豈乃一身聲名計耶 余雖感歎而止 心中菀結 直欲痛哭而已')

(37) 순조 원년 이서구의 字 '洛瑞'를 따서 이서구 세력을 '洛黨'이라 부르며 이서구와 크게 대립하였던 尹行恁은 이서구와 함께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측근 친위관료의 일원이었으며 순조 초년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외척 세도를 견제하다가 유배 賜死되게 된다. (『惕齋自述』참조) 그런가 하면 金祖淳과 南公轍 沈象奎 등도 정조의 측근 친위관료로서 안동김씨 세도의 핵심적 인물이 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세도정국하 이들의 정치적 분열이 정조의 정치적 지향을 좌절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벽파에서 시파로 옮겨가는 와중에서 호조판서, 이조판서, 평안감사 등의 요직을 역임하고 慶州金氏, 潘南朴氏, 安東金氏 '三戚鼎立' 期에 '中立之說'을 견지하는[38] 고단한 위치에서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관철시키려 분투하였으나 결과적으론 세도척족에 의해 중앙정계로부터 방폐되는 비운을 맞기에 이른다.[39] 이시기 그는 척리와 궁환을 배제한 국왕 친정을 이룸으로써 사림주도의 정치질서를 회복하려 하였으나 세도 외척의 노골적 干政과 사상의 혼돈상태에서 구심점을 상실하였던 당대의 관료학자들에게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서구의 이러한 정치행로와 좌절은 정조 조정에 포진하여 있었던 여러 관료학자들의 다기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었지만 북학의 사상적 공감대를 가졌던 연암일파의 핵심적 지식인 가운데 그 스스로 세도가가 되어갔던 남공철이나, 방폐를 겪은 후 세도정권에 타협하게 되었던 서유구와[40] 함께 볼 때 이는 이시기 연암일파 지식인과 북학사상이 겪게되었던 분열과 굴절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41] 丙寅更化 직전 중앙정계에서 축출되어 그 이후 시파 주도의 정국에서 계속 방폐되어 있었던 그는 15년 후에야 그의 능력이 필요하였던 안동김씨 세도정권에 의해 호남감사로 特拜되어 정계에 복귀하고[42] 치적을 남기지만 그의 중앙정계의 척족세도에 대한 환멸

(38) 拙稿, 1989에서 다음 자료에 의거하여 이 시기를 '三戚鼎立世道期'로 나누어 본 바 있다.
'癸亥二月…先生有日記曰 自有昨秋臺言 義難復居銓席 且世道朝象無復餘地 三戚鼎立…同志只有徐閣 而余以眇然 一身積忤於世…' (『惕齋行錄摭遺』 乾)
『惕齋自述』 '余與徐相 別爲中立之說 大行於世'

(39) 김달순옥으로 벽파가 일망타진되는 와중에 이서구에 적대적이었던 반남박씨 척족의 박종경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이서구의 반척족적 입장때문에 그를 죽였다는 비판이 박종경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李秉模가 경고함으로써 이서구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丙寅春 참조.) 이 역시 이서구가 벽파로서가 아니라 반척족세도의 정치적 소신때문에 축출되었다는 한 증거가 되는 것으로 그러기에 그는 1817년 박종경이 죽고난 바로 그 다음 해에 停啓되어 복직이 추진되게 된다.

(40) 拙稿, 1985 「徐有榘의 學問과 農業政策論」 『奎章閣』 9 참조.

(41) 拙稿, 1989 참조.

(42) 1818년 停啓 이후 그에게는 형조판서 등 여러 관직이 내려졌으나 그는 그 취임을 모두 완강히 거부하였다. 1820년 4월에 내려진 호남감사직에 대해서도 그는 마찬가지의 완강한 태도를 취했으나 '民望'을 얻고있던 이서구의 능력이 필요하였던 세도정권은 그에 대해 參禮驛定配의 처분을 내리고 이어 그곳에서 곧장 감사로 부임하도록 조치하자 그도 부득이 호남감사직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참조)

과 좌절감은 이후 右議政의 제수에 이르기 까지 모든 관직을 고사하고 은거를 계속하게 하였다. 더구나 그의 死後 4년 되던 1829년의 愼宜學獄事에서 세도정권에 의해 다시 문제시되게 된 그의 청론으로서의 근본적 정치노선은 반척족세도적인 것이었으므로 그가 벽파로 몰린 채 추탈관작되는 원인이 되었다. 게다가 연암문하의 동료로서 이젠 세도가로 발돋음하고 있었던 남공철(당시 原任領議政으로서 判中樞府事)로 부터도 그가 급기야 탄핵을 당하기에 이르렀을 때,[43] 이는 세도정국이 강요한 연암일파 지식인의 분열상과 思想 역정의 다기함, 그리고 그 일각의 쓰라린 좌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북학사상이 중앙학계의 대세를 장악하고 청조고증학이 풍미하게되며 여기에 세도가와 경화거족이 그 주동적 역할을 하게되는 바로 다음 시기, 확실히 변화된 정치적 상황과 학문적 태도·현실인식이 또 다른 조응을 하게될 때 저러한 이서구의 근본적인 독자적 정치의식과 학문적 개성은 조선 정계, 학계의 일각에서 명멸했던 한 과도적 흐름으로 방치된 채 잊혀져 갔다.

3. 政治論과 政策

右賢左戚과 蕩平의 명분 위에 왕권강화를 도모하였던 정조의 치세기에 노론 청론사류의 일원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던 이서구는 정조의 지우 속에 승지와 各曹 참의 참판을 거치고 순조 즉위 이후의 혼란한 정국 속에서는 판서급의 고위관료로서 나름의 구상을 직접 실천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있었다. 특히 1800년 10월 이후 1803년까지 세 차례 호조판서를 맡아 그

(43) 『惕齋先生行錄撫遺』 坤
'己丑冬 發啓時 南相與右相李相璜 爲時原任 聯箚 而辭語絕悖 冷煖情態 友道掃地'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남공철이 지었던 이서구의 墓碣은 이서구의 후손들에 의해 넘어뜨려져 땅 속에 묻히게 되었다. 훗날 이서구가 신원되어 復官爵된 후 그의 神道碑銘은 申應朝가 짓고 박지원의 손자 朴珪壽가 쓰게 되며 金炳學이 諡狀을 짓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이서구 후손들의 몰락 때문인듯 비석으로 세워지지 못하였던 듯하며 땅 속에 묻혔던 남공철撰의 이서구 묘갈은 이러한 연유를 모르는 듯싶은 후손들에 의해 최근 발굴되어 다시 이서구 묘역에 세워져 있다. (辛鍾遠, 1985 「李遠과 그 子 李書九 墓碑」 『江原史學』 1 참조.)

가 추진하였던 內寺奴婢와 壯勇營 혁파 등의 제 시책들은 정조 경제정책의 계승문제, 국가재정의 운영 구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아울러 연암 일파의 經濟之學이 국가의 정책으로 실천되는 양상의 일단을 보인다는 면에서 서유구의 경우[44]와 함께 흥미로운 부분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이서구 정책론의 근저에는 그가 계승하였던 老論淸論의 士林政治 理想이 척족세도의 전개국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상황인식과 정치론이 있었다. 그는 정조가 50평생에 '右賢左戚'의 실현을 위해 고심하였다고 단언하였던가 하면,[45] 정조 치세 삼십 년간에 朝臣과 戚里의 분별('朝臣戚里內外之分')이 극히 엄했던 것이라고 하여 척리의 干政과 심지어는 그들과 조신과의 접촉조차도 경계하는 반척족적 지향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었으며,[46] 척리와 士流는 각기 그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사적인 연결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47] 士流로서 또한 고위 朝臣이었던 그는 순조 초년 어린 임금을 둘러싼 척리, 엄환의 대두가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림정치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으므로 우선은 하루 속히 국왕의 親政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다.[48]

물론 이서구가 견지했던 사림정치의 이상은 국왕의 독주를 용납치 않는 것이었다. 그가 정조 즉위 이후의 정치형태를 국왕의 '摠攬權綱'이라 하여 國王專權을 그 특징으로 지적하였을 때 정조가 국왕 '獨運'의 혐의를 피하려 극력 변명하였던 것은[49] 국왕으로서도 사림정치의 이념을 거부할 수 없

(44) 拙稿, 1985 참조.

(45)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先生謂沈相曰 先朝五十年苦心 右賢左戚'

(46) 『惕齋自述』
'余遂謝之曰 先朝三十年 治法政謨 朝臣戚里 內外之分截嚴 今日國勢 雖異於前日陟降俯臨 今吾之與令監(外戚 朴宗慶) 如是相接 亦未知其如何'

(47) 『惕齋自述』
'故即爲答書於從叔曰 當此國勢綴旒之日 雖是戚里 誠能衛護宗國 報答先王 則士流 自當敬重 是所謂各盡其分 至於私相結納 非吾所知'

(48) 『惕齋自述』
'然 愚意此皆餘事 今日急務 政在於朝廷正而廟堂尊 主靜而行簡…以侍春秋鼎盛 躬親庶政之日 可也'

(49) 『惕齋屏居錄』
'戊己間 賤臣 嘗侍淸燕 論丙申後治規 偶及摠攬權綱四字 上愕然曰 卿亦爲此言乎 人君 當得人而任之 使賢能各盡其才 天下事 豈在上者所可獨運乎 予之前日治規 設或近此 盖亦不得已也 外廷諸臣 或有爲此言者 卿須爲予明其不然也 賤臣 感悚而退'

었을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蕩平의 기조 위에 실제로는 왕권강화를 추진하던 정조 스스로도 명분적으로는 국왕의 역할을 '어질고 능력있는 사람을 얻어서 그 재주를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한시킬 정도로[50] 조선정계에서 사림정치의 이상은 확고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정조가 행사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지도력을 새 국왕에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왕까지도 士의 일원으로 보았던[51] 이들의 사고에서는 이제 척리의 간정에 직면하여 국왕의 역할이 허구화되었을 때 사림정치의 회복을 위하여 士의 대표로서 국왕의 지도력 행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국왕의 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외척이 발호하였던 순조초년의 상황에서 이서구가 지향하였던 정책방향은 새로운 정책의 실행보다는 弊政의 시정이라는 다분히 소극적인 데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경주김씨 척족의 金觀柱가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주장했을 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가 반발하였던 것[52]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의 폐정개혁 시도로서 그 정치적 의미나 사회적 반향이 가장 컸던 것은 1801년의 內寺奴婢 혁파와 그와 연관된 1802년의 壯勇營의 혁파이었다. 영의정 沈煥之의 적극적 지원과 호조판서 이서구의 실무작업으로 진행된 이 시책은 결과적으론 시파의 세력기반을 와해시키고 정조의 왕권강화 의도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었지만 이서구로서는 그의 오랜 지론[53]과 정조대 이래 정계 일각의 요구를 실현한 것이었다. 물론 장용영의 혁파는 직접적으론 내시노비혁파로 야기된 재정상의 궁핍을 장용영의 재원으로 충당해 보려한 시

(50) 윗 註 49의 인용문 참조.

(51) 朴趾源, 『燕巖集』 권 10 「原士」
'夫士 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故 天子者原士也 原士者 生人之本也 其爵則天子也 其身則士也 故爵有高下 身非變化也'
『燕巖集』 권 5 「答蒼厓」
'士非窮儒之別號 譬如繪事而後素 則自天子達於庶人 皆士也'

(52)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金相觀柱 旣出登筵 建白守令不治之一經…余曰…則有今日之弊 不患無法 但患有法而不能行耳 安用復創新法爲也…'

(53) 예컨대 정조 11년 慶尙右道 暗行御史로서 그가 올린 狀啓에도 그 지역에서의 內寺奴婢의 폐단이 구체적으로 운위되고 있었다. (『正祖實錄』 권 23 正祖 11년 丁未 5월 庚午條 참조.)

도이다.[54] 그러나 내시노비 혁파는 尤巖 宋時烈 이래 연암까지 노론계열의 오랜 주장이었으며,[55] 장용영의 경우 軍營 혁파·衛部 복구 및 均役法의 폐단을 광정할 재원 마련이라는 추진 명분도 있었지만 그 재원 확보 상의 무리와 장용영 원역들의 발호가 정조 스스로 인정할 정도의 폐단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 이서구의 생각이었다.[56] 실상 그는 탕평책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가는 가운데 극도로 팽창된 內需司의 재용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았으며 公的인 국가 재용을 감축시키는 국왕의 私藏이 인정될 수 없다는 명분론에서 宮人과 宮房田의 감축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수사의 혁파까지도 의도하였으므로[57] 정조의 私的 기구적 성격도 지녔던 장용영의 혁파 구상도 여기에 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8]

---

(54) 李泰鎭, 1985『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韓國硏究院
오종록, 1990「중앙군영의 변등과 정치적 기능」『조선정치사 1800~1863』하 참조.

(55) 全炯澤, 1978「19세기초 內寺奴婢의 革罷」『韓國史論』4와『過庭錄』권 4 '在安義 論寺奴婢宜罷 抵書三從侄判府事某' 참조.

(56) 惕齋後孫撰『惕齋行狀』에 요약된 이서구의 다음 행적 참조.
'壯勇營之設 寔聖人微意 蓋將嚴宿衛 固根本 以爲革軍營復衛部之漸 且待其財用之殷富 減魚鹽之稅 除奴婢之貢 至於外營規制 又是精義之所寓 然 設施之際 有司奉行 或失其宜 雖曰 另抄精壯 而諸營自多見削 雖曰 不煩經費 而各司或致受損 餉耗日增 屯田日廣…而堂陛之不嚴 實爲無窮之憂 自在先朝 府君 屢言其物議不平 羅弊漸滋 而至是 旣罷內寺奴婢 其貢錢之入地部者 令廟堂給代 而久未得其策 府君 遂建罷營之議 以爲汰冗省費之一助 沈公煥之 以時相 又力主之 翌年正月 始建白 而行之 物情大洽'
또한 惕齋가 직접 기록한『惕齋屛居錄』에 소개된 正祖의 다음 언급 참조.
'每敎曰 予豈不知外議之如此 而爲矯均役之弊 籌度已久 末梢得失 惟在善後之如何 此亦有司之責也'

(57)『惕齋先生行錄摭遺』乾
'先輩名碩 每言內司之當罷 今雖不得遽議 而公私之界分 則截然 何可以內司需用之苟艱 貽損於度支之經用乎…王者無私藏 謂以可罷者 乃守經之正論 且裕國用之道 莫過於節省 若不能節省 而爲贍其用 別求生財之道 則天地間 只有此數 益於此則損於彼 民國終必受病矣'

(58) 더구나 이 시기의 장용영은 외척의 대두와 함께 壯勇大將인 척신 金祖淳의 사적인 세력 기반이 되고 있었으므로 이서구의 혁파명분은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장용영을 혁파할 때 이서구는 앞의 註56에서와 같은 명분론을 전개하면서 김조순의 대응에도 주의하고 있었는데 김조순도 혁파논의를 즐겨 들었다고 하는 반응을 특별히 적고 있는 데서 이서구의 자기 명분론에 대한 확신과 미묘한 정국 상황 속에서의 조심스러운 처리과정을 시사받게 된다.
『惕齋屛居錄』
'至辛酉春 上罷內寺奴婢 其貢錢之入於地部者 命廟堂給代…秋冬間 始有罷營之論 雖不爲給代事而發 汰冗省費 亦其一端 永安 時爲提擧 亦樂聞之云 而諸

한편 宮房田과 내수사의 재용 등 왕실의 사적 재정운용을 축소시키고 戶曹를 통한 정부의 일원적 재정운용과 국가재정 확충을 시도하였던 이서구의 재정정책은 '內需司와 宮房田을 혁파하며 그 재용을 戶部에 이속시킬 것'을 주장한 선배 홍대용의 「林下經論」에서의 입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야 산림처사가 아니라 정조·순조 조정의 고위 조신이었던 이서구에게서 이는 정조의 탕평책이 보였던 왕권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對備的 성격을 지니면서 순조대 이후로는 국가재정의 公的 부분에 대한 척신 등 특권적 세력의 私利추구로 인한 잠식을 극력 저지하려고 한 현실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라 하겠다. 각기 외척들과 연결되고 있었던 譯官들이 對倭 인삼무역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가운데 야기된 분란을 호조판서로서 엄히 처단하려 하자, 그 배후 후원자였던 외척 세도가들이 압력을 가해오고 그럼에도 끝내 그에 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였으며,(59) 그 결과 이조판서로 遞職되어서는 朴宗慶 등 척신의 非法的 관직획득 기도와 東萊府使 金觀柱의 內職진출 기도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으로 일관하였던 것은(60) 사림정치에 대한 보다

議不咸 久而不決 沈相 能終始主持 而徐閣與余 又力贊之 至翌年正月 始建白而行之'

(59) 『惕齋自述』

'壬戌冬 島倭 以譯官金健瑞 浦單蔘七十餘斤 投書於萊府任譯 萊伯論報籌司 是時健瑞已遞 句管主事者 即李思恭 兩譯 皆挾巨貲 出入戚里之家 萊府任譯崔琱者 以泥金門客 前判堂新差句管 遂慫恿島倭 以此書 至聞廟堂…遂竝汰四句管 即刻出代 其中李思恭者 尤爲濫滑 倚勢恣橫閭巷 側目始聞見汰 大肆咆哮往愬於兩朴 而朴亦無如之何 因永安 轉乞寬恕 余以爲民國不得不除奸去害之意 遜辭而謝之 後聞永安亦頗稱快 未踰月而余移銓任 外議或疑其因此而去度支 余則不屑也'

이 자료는 또한 '泥金'(慶州金氏), '兩朴'(潘南朴氏), '永安'(安東金氏)의 세 외척 세도가와 연결되어 對倭무역의 利權을 농단했던 譯官들의 非法的 행태와 그들 간의 각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당시 서울의 京華巨族들이 중앙관청의 胥吏를 겸하는 傔人을 거느려 그를 세력기반으로 하였던 것(拙稿, 1990 「日錄 『公私記攷』에 나타난 19세기 書吏의 생활상」 『奎章閣』 13 참조)과 함께 세도정치기 집권세력과 그에 기생하였던 부류들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날 때엔 戶判까지도 갈아치울 정도로 實勢를 가지며 정상적 국가기구와 조직 바깥에서 음성적이며 私的인 구조를 통해 私利를 추구하던 양상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60) 『惕齋集』 책 8 附錄 「年譜」

'癸亥…六月 行都政 抑奔競 循資格 戚里所親 無一遂其願 衆怒益熾 時 朴台宗慶 不得入銓地'

『惕齋行狀』

'壬戌春 拜吏曹判書…然每當銓席 屏絕私囑 一心貞白 雖所嘗親者有託 多不得

더 큰 현실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던 척족세도에 대해 그가 취하였던 과감한 대응이었으며 순조 5년 그가 실각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누구보다도 행정실무에 밝았던 고위 실무관료로서 국가재정 문제의 해결에 골몰하였던 그에게서 간과할 수 없는 일면은 중앙과 지방재정운용상의 음성적인 비합법적 관례를 이정하기 위하여는 무조건적인 금지나 규제보다는 그러한 관례를 대치할 수 있는 중앙으로부터의 과감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응태도이었다.(61) 물론 국왕의 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파행적 정국 추이와 그 속에서 고립되었던 그의 불안정한 정치적 위치 때문에 각 지방의 난마처럼 얽힌 '權宜苟且之政'에 대한 대책 마련 자체가 至難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순조초년 그는 중앙재정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안출보다는 폐정의 개혁이란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었다. 훗날 임종 시에 남긴 「遺疏」에서도 '宮府의 폐단을 바로잡고 재용을 절제해 운영해서 民力을 기를 것'을 전체 4조목 가운데 하나로 들었을 정도로(62) 중앙정부의 재정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는 객관적 한계 속에서나마 그야말로 必死的 자세로 여기에 매달렸던 것이다.(63) 그리하여 그는 허구화되고 있었던 內寺奴婢를

群戚又斂手 當垂簾初 有萊伯金觀柱內遷之議 府君曰 此豈初政之急務乎…金觀柱 嘗遇府君於公座 以不交諸戚 誚其太隘 府君笑曰 吾輩非擔荷之大臣 非貧賤之素交 其不相識宜也 此戚吏非靑陽驪陽 吾輩非栗谷尤巖 則宜各守本分 毋負我先王之大訓也'

(61) 김관주와 나누었던 지방재정문제에 대한 다음의 대화는 이서구의 이러한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惕齋屛居錄』
'余曰 是誠然矣 貪官汚吏之橫斂苛政 固當痛禁 但 外邑公用 本無定制 太半出於此等權宜 事勢所拘 雖不得不循襲舊例 而其心猶有顧畏 今若經由廟堂 一切革罷 則州郡凋弊 無以支堪 不可不別爲措處 以正事面 若以矯捄沒策 姑且勿問 則是前日州郡權宜苟且之政 自廟堂而許之也 其弊反有甚焉 此一款 合當深量 先得矯捄之策 然後 方可斷而行之 金頗憮然'

(62) 『惕齋先生行錄摭遺』 坤 「遺疏」
'伏願 殿下 奮發聖志 勵政圖治 博選賢士 輔導儲宮 先正宮府 撙節財用 以愛養民力 壹視遐邇 蒐羅才俊 以維繫人心 凡此四者 深加究理 善爲推行 則國家事猶可爲也'

(63)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方其始議(罷營之論)也 或有爲後日慮者 余曰 吾輩一死貼在額上久矣 他日之禍 未必專在此事 明知其有輔民國 而合於時措之宜 則斷而行之而已 是乃所以報我先王 至於成敗利鈍 非所逆覩也 今日此事 果爲吾輩之一大案 而旣所自料死且無憾矣 謂之何哉'

혁파하고 국왕과, 이제는 세도가의 사적 기구화하게 된 장용영의 재정을 호조로 돌려 그 결손을 메움으로서 모든 가용재원을 호조라는 공적인 국가기구의 일원적 관할 하에 두려고 하였으며 그를 통해 국가재정의 충실을 또한 도모하는 것이었다.

국가재정의 공적인 영역이 왕실 또는 세도가, 탐관오리 등의 사적인 잠식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보았던 그의 현실인식은 재정운용의 요체를 生財보다는 節省으로 보고있다든가[64] 還穀盡分之弊를 논하면서 生財의 근본은 節省이라고 하는 원칙론으로 드러나며[65] 또는 量田 시행의 전제가 되는 민생안정을 위한 방책으로 '節用而愛人'을 주장하는 등으로도 나타나게 된다.[66] 이는 연암이나 박제가, 서유구 등이 생산력의 증대를 위한 生財의 구체적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던 점과 비교할 때 이서구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적 면모였다. 일찌기 정조가 綸音을 내려 農業論을 수집, 農書를 편찬하려 할 때 그는 진상된 농업론들을 미리 검토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때 제출된 이서구의 입론이 정조에 의해 많이 채택되었다고 하는 데서[67] 생산력 제고의 문제—'生財'—에 대해 그가 무관심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앙정계에서의 외척세도라고 하는 정조 사후의 비상한 정치상황 속에서 그의 현실적 대책은 中央財政의 문제와 '節用'의 방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서구의 이러한 지향은 아마도 이 시기 反外戚世道의 정치성향을 가장 강하게 표출하였던 한 관료 정치가로서의 의지와 한계를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그가 두번째 湖南監司 시에 호남의 흉년 등의 사정을

(64) 『惕齋先生家狀艸』
'府君以爲裕國在節用 而不要於生財 爲治務端本 而不在於治末 輒以是建白 上常嘉納之'

(65) 『惕齋集』 책 8 附錄 「年譜」 正祖 24年 庚申 '…生財之本 惟在於節省…'

(66) 『惕齋先生行錄摭遺』 乾
'先生論其便否 上疏 疏略曰…夫量田所以恤民也 非所以裕國也…必欲待三五年之間 勸農力穡 使田功克擧 而經界乃可論也…至若休養勞來之方 亦非可以空言爲也 要當以不擾民爲上 而不擾之本 又在節用而愛人 然 此非如臣疎賤 所敢妄論 伏願聖明俯詢廟堂 特賜裁處云云'

(67) 『惕齋屏居錄』
'戊午己未間…命侍從出宰者 各陳民邑之弊 又以重穡力農 爲敦風正俗之本 頒降綸音 令方伯居留之臣 以至士庶 各陳務農之道 將欲編成一農書 是時…命賤臣先爲看詳以進…賤臣所論 多蒙採施'

들어 量田의 유보를 주장했던 것은 양전의 일차적 목적이 국가재정을 위한 '裕國'보다는 민생을 위한 '恤民'이라는 생각에서이었으며, '휼민'조차도 그와 우선 연관될 '不擾民'이 최고 위정자의 '節用' '愛人'에 대한 각성과 실천에 달려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68] 세도정권에 의해 방폐되었다가 이제 겨우 복직되어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69] 그로서 '擾民'의 책임소재라고 암시하였던 이들이 결국 국왕과 실제로는 외척 세도가였으리란 점에서 이서구의 이런 언명은 그들에 대한 간접적 비판을 정권에서 소외된 한 실무관료로서의 한계 속에서나마 표출하였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이서구의 강경한 시국인식은 연암일파의 동료이면서도 스스로 세도가로 자리잡아 갔던 남공철의 태도와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방폐의 정치적 상처를 지닌채 세도정권의 실무관료로 순응해갔던 서유구가 국가재정의 확보를 '生財'의 방향에서 구상하고 구체적으로는 屯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裕國' 또는 '富儲蓄'을 달성하려던 지향과도 비교되는 일면이 있다.[70]

그러나 경화거족적 출신배경에다 더구나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한 생활경험이 없이 고위관료로 진출했으며, 비록 落魄하였어도 世傳의 富와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리던[71] 그에게서 자기 시대 民의 사회적 성장과 그에 걸맞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民의 동요를 막기 위해 그가 제시했던 '恤民' 또는 '節用而愛人'이란 처방은 당시 파행적 국정운영의 책임소재를 세도가 등 최고 위정자에게서 찾고 중앙정부의 기능 회복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려던 지향으로서 이는 士林政治의 이상으로부터 이 시기의 우선적 과제를 제기하고 당시의 시국을 반성하였던 데서 출발한 현실성 있는 제안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추진주체가 되어야 할 당시의 士流는 분열되어 그 정치적 결집이 난망하였던 것도 현실이었다. 더구나 격동하는 사회현실 앞에서 그가 견지했던 박지원 이래의 '士'意識이 治者로서의 일방적 입장에 머무는 한 그 현실인식의 한계도 분명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京·鄕의 극단적 分岐가 진행되었

(68) 앞 註 66의 인용문 참조.
(69) 앞 註 66의 인용문 가운데 '此非如臣疎賤 所敢妄論' 참조.
(70) 拙稿, 1985 참조.
(71) 『惕齋集』(古 3447-28) 권 1「梁文雜絶」
'余有家僮數十口 每歲七八月 以入山采人蔘爲業'

으며 이미 경제적 관계가 전통적인 경제구조와 신분관계 및 그 규제를 압도하는 가운데 民의 사회적 성장이 분명해지고, 생산활동에서 유리되어 '遊食者'化 하였던 '士'의 사회적 지도력 발휘가 어렵게 되었을 때, 治者 일방의 각성만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근원적으로는 士의 반성과 士의 사회적 지도력 회복을 제기하고 있었던 박지원 등 연암일파 동류의 이러한 생각은 경화거족적 출신배경과 사회경험에 의해 규정되었던 이서구의 사상적 한계의 또다른 저류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박지원이 水利사업에 富民을 참여시키는 구상을 피력하고 있었으며 제한적이지만 서유구도 그의 屯田論에서 부민을 등용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72]을 상기한다면 변화된 사회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연암일파 지식인들이 보이었던 이러한 지향은 그들 후배들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또 극복되어 나가는 출발점이자 토대가 된 것이었다. 예컨대 이들의 후배 朴珪壽에 가게 되면 '王公에서 庶人까지가 모두 士'라고 하는 연암의 논리를 사의 생산활동이 불가피해진 구체적 현실 속에서 재확인하면서 '兩班'='士'의 특권의식을 반성하고 農 工 商까지도 '士'로 인정,[73] 民의 입장에 근접한 士意識을 표방하기도 하면서 격동기의 대내외적 사회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士로서의 自意識을 고수하면서 사회현실문제의 해결을 모색했던 연암일파의 사상적 유산과 그 속에 서있었던 이서구의 과도적 면모가 훗날 어떻게 극복되어 갔던가를 시사받게 된다. 그러나 연암일파 사상의 개화사상으로의 전회와

(72) 拙稿, 1985 43~44쪽 참조.
참고로, 서유구 둔전론의 典範은 연암과 박제가의 둔전 구상, 그리고 서유구 族叔 徐美修가 정조말년 제안했던 둔전론이었다. 서미수의 둔전론은 정조의 관심을 얻었으나 정조의 急逝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서유구는 쓰고 있다. 연암 등과 이서구의 관계는 증언할 필요가 없거니와 서미수와 이서구는 사돈까지 맺은 정치적 동지로서 이서구는 서미수의 묘지명을 쓰면서 그의 둔전론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惕齋集』 권 9 「行承政院都承旨徐公墓誌銘」) 이서구는 이러한 여러 둔전론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한다.

(73) 朴珪壽, 『瓛齋集』 권 11 雜文 「范希文請興學校淸選擧」
'夫人之有孝悌忠順之德也 何莫非士也 士之以百畝爲己憂 勤力以長地財者 謂之農 士之飭五材辨民器 開利用厚生之物者 謂之工 士之貿遷有無 通四方之珍異 以資之者 謂之商 其身則士 其業則農工商賈之事也'
같은 책 권 8 「與溫卿」 '稍有地閥者 輒稱兩班 兩班 此爲最堪羞恥之說 無識之口也'

관련될 이러한 과정의 구명은 자료의 축적 위에 보다 정밀히 검토되어야 할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고 하겠다.

4. 結 論

연암과 담헌에 의해 북학론의 논리적 토대가 마련된 위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게 된 북학풍은 연암일파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들 각각의 성장배경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사상적 지향으로 귀결되었다.

경화거족적 출신배경과 그러한 사회생활 경험을 하게 되었던 이서구의 경우 주자학의 학문적 절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배학자들의 주자주의적 의리지학에서는 멀어지고 오히려 그로서는 家學의 수용 위에 '專門之學'을 추구함으로써 청조고증학과 공통적인 학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음 단계 북학 풍미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전문지학적 관심은 직접적 치세에 유용한 경제지학으로 곧 연결되는 것이었고 청조고증학을 적극 수용한다든지 또는 그 위에서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그의 학풍은 여전히 전통적인 주자주의적 의리지학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지학을 학문의 본령으로 하였던 담헌·연암을 뒤쫓는 반면, 고증학을 비판적으로 보았던 그들과 달리 고증학 수용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다음 단계 그들 후배와의 架橋的 학풍을 가졌던 것이라 하겠다.

한편 정조로 부터 견제되기도 하였던 연암일파의 시문풍은 法古創新을 표방하는 데서도 보듯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개성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이었는데, 이서구는 연암·담헌 등이 제기한 북학론의 토대 위에서 청조 시풍과 학술까지도 수용하여 전통적인 것에 접목을 시도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淸朝 王漁洋에 경도된 北學的 詩風을 보이고 正祖의 文體反正에도 저항함으로써 다음 시기 그들 후배들이 제기하게된 다양한 시문풍의 선구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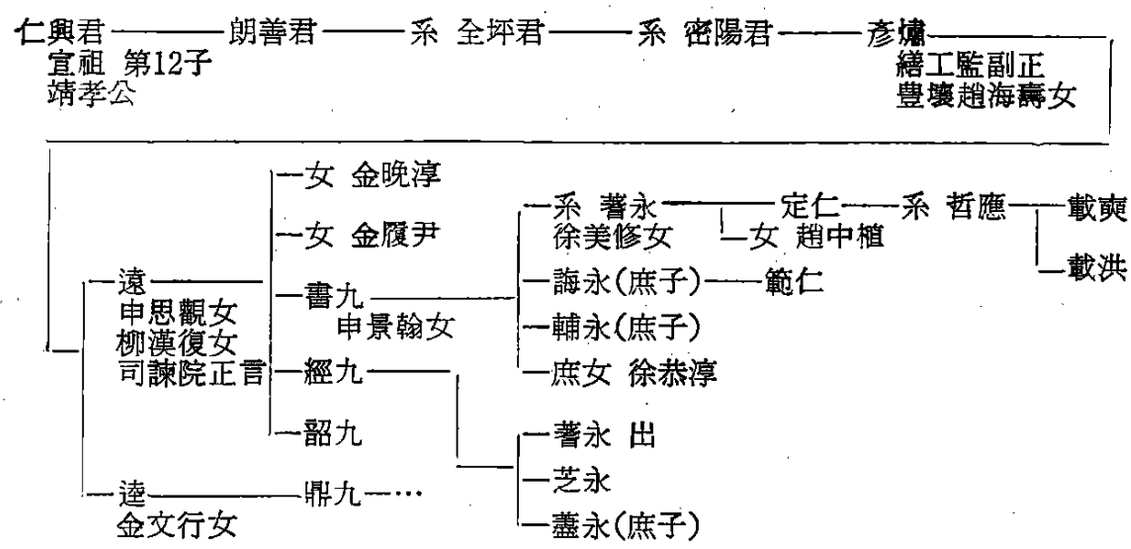
문학으로 이름을 날리던 젊은 시절, 노론청론의 일원으로서 정조 측근에서 사환하게 되었던 이서구는 그의 실무적 행정능력을 크게 인정받으며 순조 즉위 이후로는 척족세도의 와중에서 그의 경륜을 펼 기회를 맞이하였다.

內寺奴婢와 壯勇營의 혁파 등 국가재정의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제시책과 척족의 비법적 요구에 대한 배척은 탕평정국이 낳게된 폐단을 광정하려는 노력이었으며 사림정치를 위협하는 척족의 干政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국왕의 친정 하에 국가기구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림정치를 실현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서구의 反戚族世道的 정치지향은 노론시파 외척의 세도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그의 정치적 방폐와 함께 좌절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서구는 연암·담헌 등의 선배들과 박제가·서유구 등 동류들의 생산력 제고를 위한 구상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나 고위 실무관료로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책으로써 실천할 기회를 가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세도외척들이 국왕을 허구화시키면서 파행적 국정운영을 해가던 순조초년, 사림정치를 희구하던 그에게서는 비법적 척족 간정에 항거하면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그 정상적 운용이라는 면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중앙실무관료로서의 특징적 면모가 보이고 이것이 그의 사상과 실천의 폭을 한계지었던 듯하다. 이는 또한 處士的 입장에서의 연암일파 지식인들이 士의 반성과 사회적 지도력 발휘를 촉구하면서 제기하였던 사회적 실천의 방향이 훗날 척족세도의 와중에서 경화거족적 고위관료로 그 입장이 전개되었을 때 가지게될 사회적 실천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순조대 이후 조선사회의 전면적 변동 속에 조선전통주자학과 그 명분론이 현실적 영향력을 상실해갈 때 연암일파의 북학사상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기된 것이었으나, 다기하게 전개되었던 연암일파 지식인의 세도정국에의 대응과 그들 士意識의 추이는 이처럼 북학사상의 실천적 의미에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필자 : 한신대학 국사학과 교수)

附錄 1. 惕齋 血緣圖



附錄 2. 惕齋 年譜

1754년(英祖 19) 甲戌 ; 서울 西部 盤石坊에서 출생(9월 14일). 아버지는 全州 李氏 遠, 어머니는 平山 申氏 思觀의 따님.

5세 1758년 戊寅 ; 어머니 下世(4월) 조부 하세(5월) 內舅 申暕을 좇아 史略, 史記 列傳을 배움.

10세 1763년 癸未 ; 內兄 光呂를 좇아 通鑑綱目을 배움.

12세 1765년 乙酉 ; 서울집에 돌아와서 四書 詩書 春秋左氏傳 등을 읽음. 때때로 叔祖 默成堂에게 가서 배움.

14세 1767년 丁亥 ; 嘐嘐齋 金用謙을 賓客으로 하여 冠禮 올림.

15세 1768년 戊子 ; 通德郎 申景翰의 딸과 婚禮 올림.

17세 1770년 庚寅 ; 부친이 南海로 유배갔다가 돌아와 下世함(9월). 詩文 金石 六藝之學에 침잠함.

21세 1774년 甲午 ; 庭試 丙科 第16人으로 등과함.

22세 1775년 乙未 ; 국왕이 曾祖 密陽君에게 致祭하고 6품으로 加資시킴. 成均館典籍 禮曹正朗 司諫院正言 吏曹佐郎 역임.

23세 1776년(正祖 卽位年) 丙申 ; 李普溫의 비방을 받아 去官하여 물러남.

31세 1784년 甲辰 ; 吏曹參判 宋載經의 천거로 正言이 되고 內閣講製文臣이됨.

32세 1785년 乙巳 ; 侍講院司書 講製文臣으로 入侍.

33세 1786년 丙午 ; 弘文館錄에 들고 校理 修撰에 임명됨. 校書館에서 『宋子大全』을 함께 교정함.

34세 1787년 丁未 ; 慶尙右道 暗行御史로서 嶺南 按廉함. 司憲府掌令이 됨.

35세 1788년 戊申 ; 講製課試에 세 번 首席함. 通政大夫에 오르고 同副承旨로 임명됨.

36세 1789년 己酉 ; 『輿地考』를 찬수함. 禮曹參議가 됨.

37세 1790년 庚戌 ; 關西지방 대흉수. 寧邊府事가 됨.

38세 1791년 辛亥 ; 承旨로 소환됨. 申嶢의 일에 연루되어 유배감.

39세 1792년 壬子 ; 풀려나서 兵曹參議가 됨. 『奎章全韻』을 교정함.

40세 1793년 癸丑 ; 승지로서 李家煥의 죄를 논핵함. 大司憲이 되고(2월) 全羅監司로 임명됨(8월).

42세 1795년 乙卯 ; 임무수행의 잘못으로 寧海府에 유배갔다가(6월) 풀려남(11월).

43세 1796년 丙辰 ; 司譯院提調 刑曹參判 同知春秋館事 義禁府事 漢城府左尹 戶曹參判 掌樂院提調 大司諫 등을 역임함. 尹著東의 천거로 備邊司堂上이 됨.(12월) 『尊周彙編』編纂·『整理字譜』編校·『同文彙考』續編 校刊·『春秋』校正 등에 참여.

44세 1797년 丁巳 ; 禮曹參判 尙衣院提調 역임. 비변사 有司堂上이 되고(윤 6월) 이후 비변사 업무를 전담함.

45세 1798년 戊午 ; 行左承旨로서 비변사 湖南句管堂上이 됨(3월).

46세 1799년 己未 ; 吏曹參判이 됨(5월).

47세 1800년 庚申 ; 五晦筵敎에 상소하여 의견 밝힘(5월). 正祖 승하 純祖 즉위(6월). 禮房承旨 刑曹判書를 역임하고 嶺南按覈使로 仁同作變을 처리함(8월). 戶曹判書(10월)가 됨.

48세 1801년(純祖 元年) 辛酉 ; 內寺奴婢를 혁파함(1월). 知義禁府事로 西學推鞫에 참여 平反之論을 주장하여 李基讓·丁若鏞 등이 극형을 모면함. 尹行恁·徐有隣 등 유배가서 죽음.

49세 1802년 壬戌 ; 壯勇營 革罷(1월) 주도. 吏曹判書(2월) 知敦寧府事 工曹判書 다시 戶曹判書(9월) 역임.

50세 1803년 癸亥 ; 倭譯의 蔘 농간 처벌(1월). 吏曹判書(2월) 戶曹判書(9월) 역임.

51세 1804년 甲子 ; 大司憲(2월) 平安監司(5월)가 됨.

52세 1805년 乙丑 ; 李敬臣이 權裕 일파라고 공격하자(7월) 永平의 鄕邸로 돌아가서 이후 은거를 계속하게 됨.

53세 1806년 丙寅 ; 金達淳 賜死(丙寅更化) 이후 僻派 일망타진됨.

65세 1818년 戊寅 ; 停啓(9월) 됨.

66세 1819년 己卯 ; 刑曹判書로 특별히 임명되나(6월) 나가지 않음.

67세 1820년 庚辰 ; 湖南監司로 특별히 임명되어(4월) 부득이 나아감.

69세 1822년 壬午 ; 湖南監司 임기 만료(3월) 이후 향저로 돌아가 은거함.

71세 1824년 甲申 : 右議政으로 特拜(9월)되나 사양하고 判中樞府事가 됨(12월).

72세 1825년 乙酉 ; 繼母 柳氏 喪(9월 13일)을 치름. 「遺疏」를 口述하고 『楚辭』朗誦을 듣는 가운데 永平 鄕邸에서 逝去(9월 29일)하여 春川 南 山外面 梧琴里 先塋에 묻힘.

1829년 己丑 ; 愼宜學이 李書九의 庚申疏를 언급하여 上疏를 올리자 獄事가 일어나서 이서구도 追奪官爵 당함.

1854년 甲寅 ; 停啓됨.

1870년 庚午 ; 領議政 金炳學이 諡狀을 지음.